

우리학교 58번째 걸음 내딛다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에서 첫 개교기념일 행사 열려



▲개교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외인들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기수 (전)대교협회장 △Kameyama 동경외대 총장 △권순환 총동문회장

지난 달 20일(금), 오전 11시 서울배움터 지하캠퍼스 미네르바 홀에서 개교 58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400여명의 내·외빈 및 학부모가 참석했다. 국민의례가 진행된 후 이남주 이사장 축사와 박철 총장의 기념사에 이어 권순환 총동문회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기수 (전)대교협회장, Kameyama Ikuo 동경외대 총장, Antonio Salazar Galvez 주한과테말라 대사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지난 3월 26일(월)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특별연설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특별 동영상 상영 및 박철 총장의 오바마 트레일(Obama Trail) 선포식이 있었으며, 장기근속자와 우수교직원 등에 대한 시상식 또한 함께 진행됐다.

이남주 이사장은 “국가와 세계발전에 공헌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발전해야 한다”며 “외국어 교육을 통

해 세계 각국의 국제적 전문인이 계속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박철 총장은 기념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언급하며 “우리학교는 현재 전 세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월부터 서울배움터에는 사이버외국어대학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됐고 글로벌캠퍼스는 다목적 신분관 건립공사를 조속히 실현할 것”이라는 등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밝혔다.

이후 교내 장기근속자 포상에서는 김영중 교수 외의 39명의 교수진과 김미연 외 20명 직원이 포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우수교원 포상은 업적평가우수교원상과 HUFSG의상으로 나눠져 시상됐다. 김시흥 외 19명의 교수진이 업적평가우수교원상을 수상하고 신정환 교수 외 19명의 교수가 HUFSG의상을 수상했다. 대표자 신정환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교수는 “국

내 최고의 대학으로서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역사는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또 오바마 방문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기울였던 △교수진 △시설관리팀 △국제교류팀 등을 위해 우수직원 포상과 특별 포상도 진행됐다.

이 날 행사진행을 맡은 김대성 교무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외교통상부 및 다른 대학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이번 기념식이 다른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순환 총동문회장은 우리학교 발전을 위해 교수진과 학생, 직원의 협동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날 행사를 마친 뒤 동문의 밤 행사를 열어 동문회관 건립 본격 추진을 선포함으로써 개교기념일의 의미를 다졌다.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대학평의원회 지연...개방이사 선출에 차질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의 불성사로 인해 개방이사가 선출되지 못하고 있다.

박철 총장은 지난달 12일(목)과 23일(월) 2차례에 걸쳐 대평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참석인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연이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두 회의 모두 불참한 구성원은 교수대표 5인과 직원대표 1인이다.

교수대표 측은 임기 조정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교수대표는 매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를 통해 선출된다. 그런데 지난학기 동계방학 중에 열리기로 예정된 교협 총회가 이번해 3월로 연기돼 교수 측 대표가 선출되지 못했다. 다른 대평원 구성원들의 임기가 1월부터 시작된 것과 달리 교수대표의 임기는 3월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평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면 1.2월 두 달간 대평의 교수대표는 공석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음해 3월까지의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직원대표 1인은 노동조합지부장이며 병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반수 불참으로 대평의 회의가 소집되지 못하자, 그 산하기구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또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월) 2명의 개방이사 임기가 만료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선임인수의 2배수인 4명을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7명의 추천인을 선발한 후 더 이상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학태 기획조정처장은 “학교 측이 임의로 구성원 일부의 임기를 조정하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대평의 소집이 지연되면 학내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은 지속적으로 회의가 성사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대학평의원회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대학법인 이사의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보장한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5인 △학생대표 2인 △직원대표 2인 △동문대표 1인 △기타 학교 발전 기여자 1인,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오바마 트레일



▲지난달 우리학교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강연장으로 향한 길을 따라 오바마 트레일이 설치됐다.

지면안내

2 세계의 문화 한자리에!
2012 문화엑스포

4 원어수업, 개선 필요

6 화학과의 두 원소 하현준·허성교수

7 도서관 예절의식 진단



'대리출석'은 가까운 은행에서
학업에서까지 빚지지 맙시다



당신의 특별한 오월을 위하여

국·부장 고정칼럼

▲오월이다. 달력을 넘기다 보면 유난히 다른 달보다 오월은 각종 행사들로 가득 차있다. 여기저기서 열리는 꽃 축제들의 소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의 봄 운동회와 같은 시시콜콜한 행사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또 중간고사를 마친 대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렇듯 오월은 이렇다 저렇다 할 행사들이 많은 달이다.

▲오월에 행사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날'이 많기 때문이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버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을 비롯해 오월에만 무려 22개의 날이 있다. 이런 날들을 맞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사

랑하는 연인에게 무엇을 선물해야할지 고민에 빠진다. 사실 순수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기 보다는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의 마음이 더 클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 그 의미를 생각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연중행사가 돼버리기도 한다.

▲오월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달일 수도 있다. 매년 반복되는 날들은 이제 형식적인 날들이 돼 버린 것 같다. 하지만 같은 날이라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제정된 날이라도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단지 365일 중 하루에 불과하다. 같은 오월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행사가 많아 정신없이 바쁜 달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감사의 마

음을 떠올리는 달인 것처럼 말이다.
▲당신에게 오월은 어떤 달인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오히려 생똥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의미들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일로 인해 발견될 때가 많다. 돌아보면 인생엔 늘 힘들었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생각지 못했던 감동을 준 사람들도 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오월은 충분히 당신만의 특별한 달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당신만의 감동 스토리가 있다면 그 감동을 선물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월을 맞이해 보는 것은 어떨까?

편집장

학내 브리핑

사회대 학생을 위한 도서관 마련돼

이번 달 7일(월) 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대) 도서관이 사회대 학생회실에 자리를 잡는다. 사회대 학생들만 이

이중전공 변경 신청하세요

이번 달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07학년 이후의 학생들에 한해 이중전공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축제준비위원회이 돼주세요

서울배움터 축제준비위원회에서는 열정있고 참신한 아이들을 가진 학생들을 모집한다. 축제준비위원회로 선정되면 5월에 있을 대동제를 기획 및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잉글리쉬존, 참여하면 상품이 평평

이번 학기부터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주최로 '잉글리쉬존(English Zone) 우수 참여자 포상'을 실시한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2012 문화엑스포 51개국 학생들 참가해



▲문화엑스포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국의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지난 27일(금) 서울배움터 운동장에서 2012 문화엑스포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문화 엑스포는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이 교육원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로의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연 1회 개최하는 행사이다.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한 문화엑스포는 전통음식 시식행사와 각국 홍보자료 전시 등으로 이뤄졌다.

공연팀과 부스팀으로 나뉘어 진

행된 시상에서는 일본과 태국 팀이 '베스트 공연 상'을, 중국과 카자흐스탄 팀이 '베스트 부스 상'의 영예를 안았다.

을 밝혔다. 카자흐스탄 팀의 아이 게립(25) 학생은 "그 동안 부스에서 소개할 음식과 홍보물들을 준비하면서 즐거웠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전 세계 수십여 국가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해 오고 있다.

안지혜기자 84ladypress@hufs.ac.kr

축제, '빛처럼 음악처럼' 다가오다

전통 춤부터 락 페스티벌까지... 테마별로 골라잡아

이번 달 16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서울배움터 축제가 막바지 준비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축제는 '빛처럼 음악처럼'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각 날마다 서로 다른 테마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16일에는 각 과별 소모임이 세계의 전통 음악과 춤을 공연해 하나의 테마를 이루게 된다.

'미스터 외대' 행사도 우리학교 헬스부의 주최로 다시 돌아온다.

또한 축제가 진행되는 내내 학교 운동장에서 △동양어대 △서양어대 △중국어대 △일본어대를 주축으로 '월드빌리지'가 열려 세계 각 국가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축제가 진행되는 내내 학교 운동장에서 △동양어대 △서양어대 △중국어대 △일본어대를 주축으로 '월드빌리지'가 열려 세계 각 국가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총학생회에서 축제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승(서양어·네덜란드어 09)군은 "단순한 공연만 있는 축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 한다"

故 손유경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달 6일(금) 손유경(상경·경제 09) 학생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3월 상경대학 학생회는 손 양을 위해 헌혈증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임면

외대학보 86기 수습기자 합격을 축하합니다

서울배움터

- 권수정(서양어·이탈리아어 12)
김정원(국제·국제 12)
양재상(상경·경제 12)
이은결(동양어·터키어 12)
임채윤(동양어·몽골어 11)
홍진아(사회·정의 12)

글로벌캠퍼스

- 김계선(경상·국제경영 11)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면 정기자 문요섭(동유럽·폴란드어 11)



글로벌캠퍼스 상반기 정기총회 성사

학생들 참여 열기 뜨거워

지난 달 5일(목) 글로벌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상반기 정기학생총회(이하 정총)가 열렸다. 재학생 8489명 중 약 29%인 1109명이 참석해 순조롭게 회의가 이뤄졌다. 이번 정총은 △총학생회 활동보고 △10대 학자요구안 결의 △논의 및 의결 안건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10대 학자 요구안 결의

등록금 인하와 본·분교 통합 진행상황 등의 총학생회 활동보고에 이어 10대 학자 요구안에 결의했다. 이는 △학점 삭제로 전체 평점을 높일 수 있는 학점 포기제도 도입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본·분교 통합안 △복수전공 제도 개선안 적용 시기를 12학번으로 정정 △신분관 건설 △잔디구장 건설 △7+1제도, 교환학생제도 지원자 장학지원 확대 △어문학과 전압공사 △자연관 로비 '멀티플 라자(스터디룸)' 설치 △교내 셔틀버스 위치추적 어플 지원 △인문·경상관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이도경(동유럽·노어 11)양은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 같다"며 "특히 학점포기제도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보였다.



▲ 정기총회에 앞서 성원구성을 점검하고 있다.

◆논의 및 의결 안건 거수로 인준 안에 동의

논의 및 의결 안건에서는 3가지 사항이 인준됐다. 먼저 총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특별기구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국제스포츠레저학부가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돼 의사결정권을 갖게 됐다. 임정수(국스레 08) 국제스포츠레저학

부 학생회장은 "바람직한 의결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아리연합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참가 구성원이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글로벌캠퍼스 학생회 회칙이 제1항부터 마지막까지 발표된 후 공포됐다.

◆학생들의 참여 독려방안 돋보였지만 더딘 회의진행 아쉬워

총학생회는 정확한 인원수 파악을 위해 노천극장 입구를 한 곳으로 통제했고 학생들은 입장하기 전 이름을 작성하고 담요와 행사 추천권을 받았다. 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의가 시작되기 전 개그우먼 김영희씨가 '리더십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장대기 및 경품행사 등 길어진 사전행사 탓에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뜨는 학생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문유미(동유럽·폴란드어 12)양은 "바람이 불어 너무 춥고 생각보다 회의가 길어져 끝까지 참석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때 문인지 처음 1109명이었던 학생 수가 마지막 인준 안건에서는 500명으로 줄기도 했다.

하지만 추운날씨에도 기타토의 안건에서 △복수전공제도 개선안 △본·분교 통합 △교내 예비군 훈련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회의를 진행한 이현성(동번역·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대표자가 아닌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나운 기자 84beginning@hufs.ac.kr

"빠-! 글로벌리그,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봄볕과 함께 우리학교 스포츠 시즌이 시작됐다. 이번 달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열리는 글로벌리그는 글로벌캠퍼스 체육대회인 왕산체전의 새로운 이름이다.

남자 선수들은 △축구 △농구 △농구 종목으로, 여자 선수들은 피구와 발야구로 승부를 겨룬다. 글로벌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간부들과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심판단은 축구와 농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을 심판하고, 축구 심판은 동아리 헤르메스가, 농구는 피버스가 맡는다. 단체전은 3경기를 할 예정이며 종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번 해 체전에는 새로운 경기규칙이 적용된다. 남자 선수에 비해 경기 1종목이 적은 여자 선수들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피구와 발야구의 점수는 △1위 15점 △2위 10점 △4강 진출과 5점 △8강 진출과 3점으로 채점된다. 참여인원이 많은 축구는 여자종목과 같은 방식으로 환산되며, 족구와 농구는 △1위 10점 △2위 5점 △4강 진출과 3점 △8강 진출과 1점으로 여자종목보다 낮은 점수가 적용된다. 단체전의 경우 △1위 20점 △2위 10점 △3위 5점으로 채점된다. 이에 대해 임상우(국스레 12)양은 "학과의 이름을 걸고 종합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내보였다.

또한 매년 불거지는 경기규칙에 대한 시시비비를 정확히 하고자 지난 달 30일(월) 경기규칙을 설명하는 시범경기를 가졌다. 시범경기는 여자종목만 선보였으며 피구는 지난해 우승 국제스포츠레저학부와 준우승 전자물리학과가, 발야구는 우승 국제스포츠레저학부와 준우승 화학과가 시행했다. 유효립(자연·화학 11)양은 "이번 시범경기로 경기규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관람소감을 말했다.

정창민(국스레 08) 심판위원장은 "글로벌리그를 통해서 학우들이 다른 단과대 학우들과도 친분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외대인으로서 정정당한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모든 일정과 결과는 총학생회 SNS (<http://www.facebook.com/newhuf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홈페이지 (<http://www.newhufs.net>)에 심판위원장이 인증한 경기 기록지가 게시돼 있어 자세한 경기내용을 알 수 있다.

우보연기자 84omg@hufs.ac.kr

▶ 이번달 3일(목)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와 태국어 통번역학과가 농구경기를 하고 있다.



▲ 지난달 30일(월)에 국제스포츠레저 학부와 화학과가 발야구 시범경기를 하고 있다.

(시상내역)

상	상금
종합우승	50만원
종합 준우승	30만원
종합 3위	20만원
종목별 우승	20만원
종목별 준우승	10만원
Fair Play상	10만원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이 남 진** (법학7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5
웅국생명빌딩 5층
Tel. (02)563-2284 Fax. (02)3453-3156

법무법인 백범
변호사 **박 병 주**
인천 남구 학익동 252-9
중앙법조빌딩 5층
Tel. (032)861-7676 Fax. (032)875-0302

우리은행 준법지원부
변호사 **조 윤 경**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우리은행빌딩 14층
Tel. (02)2002-5361
E-mail : choyunk@wooribank.com

법무법인 대성
대표변호사 **조 창 영** (법학7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5
웅국생명빌딩 5층
Tel. (02)3453-7381 Fax. (02)558-0391

법무법인 나은
변호사 **석 윤 수** (법학9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5
메트로빌리스 211호
Tel. (042)482-7984 Fax. (042)482-7987

변호사박우근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우 근** (법학93)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자산동 715-2
법조타운 508호
Tel. (062)236-2709 Fax. (062)232-8290

신한생명
지점장 **이 수 형** (태국어89)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6-9
웅진빌딩 3층
Tel. (032)429-2865

신한은행
지점장 **배 한 경** (일어83)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300
신한은행 대방역지점
Tel. (02)843-7775 Fax. 0505-178-6685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o you understand me?" 학생, "뭐라고요?"

원어수업,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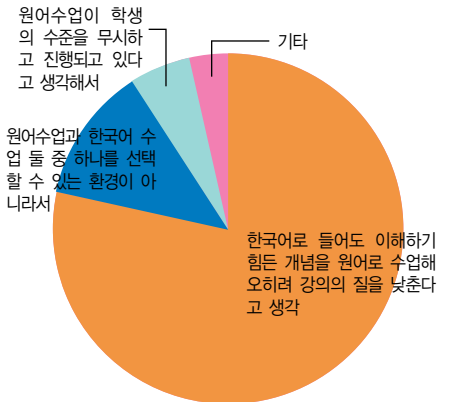
지난해 한 카이스트 학생이 교수진에게 "우리말로 전공 수업을 들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후 '모든 전공강의를 원어(영어)로 진행하는 환경이 오히려 강의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대학 내에서 불거졌다. 우리학교도 원어수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주장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원어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생이 받고 싶어 하는 원어수업이 무엇인지, 학생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우리학교 학생 10중 7명 "원어수업 힘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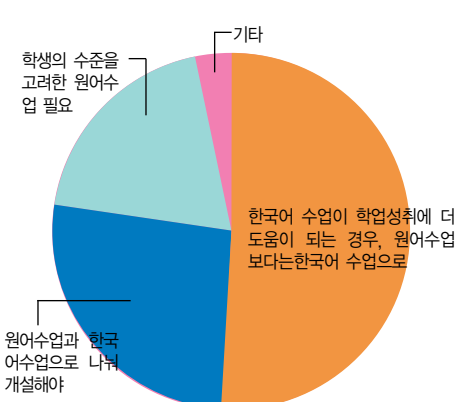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 학교는 당당히 국제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 국제화 부문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 중 하나는 전공과목 원어수업 비율이다. 우리학교는 전공과목 원어수업비율이 36%로 전국 대학 중 7위를 기록했다. 학교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어수업 비율을 늘리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 원어수업 비중이 거의 100%에 달하는 국제학과와 국제통상학과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은 얼마나 수렴됐을까.

원어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30일(월)부터 이번달 2일(수)까지 양 배움터 학생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58.4%인 393명이 원어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학생 2명 중 1명은 원어수업을 듣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어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27.62%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이 원어수업에 불만족하고 있는 셈이다. 불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의 76.62%는 '한국어로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개념을 원어로 수업해 오히려 강의의 질을 낮춘다'고 생각했다. '영어실력이 낮은 학생이 많아 결국 교수님이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편 원어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27.62%의 학생들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수업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50%).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30.83%는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어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타의견을 제시한 10.83%는 '성적이 절대평가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답해 원어수업 자체의 장점보다는 부수적인 이득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사실 절대평가 방식이 학점관리하기에 더 좋아서 일부러 원어수업만을 고집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정



원어수업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원어 수업이 바뀌어야 하는 방향은?

니 깊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큰 개념만을 설명하는 강의가 많다', '영어실력이 낮은 학생이 많아 결국 교수님이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편 원어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27.62%의 학생들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수업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50%).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30.83%는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어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타의견을 제시한 10.83%는 '성적이 절대평가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답해 원어수업 자체의 장점보다는 부수적인 이득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사실 절대평가 방식이 학점관리하기에 더 좋아서 일부러 원어수업만을 고집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정

작 들었던 원어수업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학교 뿐 아니라 학생들도 바라는 원어수업 필요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는 원어강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학교 중 하나다. 서울과기대는 자연과학계열 전공수업에서 특수한 용어나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원어수업을 수준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1학년 교양필수 과목 중 하나인 '미분과 적분'에서는 학생의 영어 수준을 상중하로 나눠 강의를 세 개 개설했다. '하'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무리하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한국어 중심으로 가르친다. 이에 비해 '상'에 속한 학생들은 대학 수준의 수학을 영어원서로 공부하게 하는 등 더 심화된 수업방식을 채택한다. 유진(서울과학기술대)은 "수준별 수업방식이 오히려 영어실력을 키우는데 더욱 도움이 됐고 학교 수업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어수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50.75%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경우, 원어수업보다는 한국어 수업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원어수업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민구(어문·중앙아시아 11)군은 "원어 수업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 용어만큼은 한국어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준다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강의를 원어 수업과 한국어 수업으로 나눠 개설해야 한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원어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4.06%, 21.62%로 뒤를 이었다.

국제화 순위를 위해 이제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원어 수업'이 아닌 '학생이 원하는 원어 수업'을 만들어 나갈 차례다. **강유나 기자 84yoonah@hufs.ac.kr**

이제 날씨 걱정, 신발 걱정 끝



▲ 지난 달 24일(화) 어문대학으로 향하는 언덕에 위치한 계단이 완공됐다. 어문대학 앞 가파른 경사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계단은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다독자 및 토익·토플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자 시상식 열려



▲ 한성철 도서관장과 상패를 자랑스럽게 펼친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달 2일(월) 2011학년도 2학기 다독자 및 토익·토플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자 시상식이 서울배움터 중앙도서관 도서관장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제고와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매학기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8명(1등 1명, 2등 7명)의 학생이 다독상을, 5명(1등 1명, 2등 4명)의 학생이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자 상을 수상했다.

총 340권의 대출건수로 다독상 1등을 받은 김다원(중국어·중국어08) 양은 "평소 소설 읽기를 좋아해서 거의 하루에 두 권 꼴로 한 학기 내내 읽은 듯하다"며 "특히나 우리학교 학생들은 다들 언어공부하기 바빠 다양한 분야의 기획 독서를 하지 않는 것 같다. 학우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다독상은 학기 중 최다 대출한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및 휴학생 포함)이 수상자로 선정되며, 동

점자일 경우 고학번이 우선한다.

한편 토익·토플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자의 영예는 모의테스트 1회 이상 응시자 중 최고 득점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모의테스트 1등 수상자 이준호(서양어·노어05) 군은 "방학 때 모의테스트를 몇 번 응시했었다. 우리학교에는 워낙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게 돼 기쁘다"며 "주변 동기나 선배들에게도 응시하라고 적극 홍보해야겠다"고 전했다.

한성철 도서관장은 이날 축하에서 "치열한 독서를 통해 내면을 닦고 지적·문화적 콘텐츠를 쌓아야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며 "다독상과 모의테스트 수상자들이 사회의 촉망받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낙후된 도서관 시설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안지혜 기자 84ladypress@hufs.ac.kr

2012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요강

1. 전형 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인터넷 작성	2012. 5. 7(월) 14:00 ~ 5. 11(금) 22:00	www.uwayapply.com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해당일 24시간 작성 가능
서류 제출	2012. 5. 7(월) 14:00 ~ 5. 11(금) 22:00	교육대학원 교학과 (대학원 건물 111호)	우편 제출의 경우 5. 11(금)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면접 전형	2012. 5. 26(토)	대학원건물 교사장	전공별 면접시간은 5.25(금)14:00 교육대학원홈페이지 입사뉴스에 공지예정
합격자 발표	2012. 6. 14(목) 14:00 예정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gse.hufs.ac.kr	
합격자 등록	2012. 6. 18(월)~6. 22(금) 예정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은행업무시간 내 인터넷뱅킹, 폰뱅킹 가능

* 제출서류접수시간 : 교학과 근무시간 14:00~22:00 (토요일, 일요일 휴무)
* 지원자 전원은 면접전형에 응시하여야 함

제출서류 보낼 곳 :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과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과정	구분	장소	모집인원
교육학석사	교원양성 (11개전공)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상담심리 ·유아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명
	교원양성 (11개전공)	·교육경영관리학 ·다문화교육(2012신설) ·어린이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 홈페이지 http://gse.hufs.ac.kr 02)2173-2419~21

교육대학원 교학과

"자신을 브랜드화 하라"

Creative · Power MBA 2012 후기 신입생 모집

■ 모집 과정

Creative MBA (주 간) : 경영학과, 마케팅학과 / Power MBA (야 간) : 경영학과
Power ifMBA (온라인) : 국제금융학과

■ 과정의 특징

- ▶ 한국외대출신 동문 장학금 지급(학부성적 3.5이상, 재학 중 1회 100만원)
- ▶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는 CEO 및 경영전문가의 특강을 매학기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
- ▶ 경영인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강
- ▶ 글로벌 CEO 해외과정 동문회 초청 세미나(구글 본사, 조세형평국 등 방문)
- ▶ SK네트웍스, CJ푸드빌, 세종문화회관 등과의 산학협동 수업
- ▶ 국내·외 CEO과정 동문과의 교류행사 등 막강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 ▶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원 최초의 마케팅학과 개설
- ▶ 1:1 담임 교수제 (Academic Personal Advisor)
- ▶ 주, 야간, 온라인의 상호 보완적이며 탄력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 ▶ MBA 인재뱅크제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의 한인 상공회의소 인턴십 프로그램

■ 원서 접수

- ▶ 특별전형 : 2012. 4.30(월) ~ 5.11(금) * 면접일 : 5. 19(토)
- ▶ 일반전형 : 2012. 6. 4(월) ~ 6.15(금) * 면접일 : 6. 23(토)

* 자세한 사항은 http://biz.hufs.ac.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Creative MBA(주 간) 02-2173-2399
Power MBA (야 간) 02-2173-2408
Power ifMBA (온라인) 02-725-0085

"여러분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을
한국외대 Creative · Power MBA과정에서 만나보십시오"

부영이 통신



북미-미국



노르웨이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인 '절규'가 지난 2일(수)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1억 2천만 달러에 낙찰됐다. 이전 미술품 경매에서 거래된 미술 작품들 중 최고가의 기록이다. 익명을 요구한 낙찰자는 경매가 시작한 지 15분만에 전화를 통해서 경매에 참가했다. 이번 경매에 그림을 내놓은 사람은 뭉크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피터 울센이다. 그는 뭉크가 살던 마을 근처에 새로운 박물관 호텔 및 아트센터등을 짓기 위해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울센은 유일하게 뭉크의 작품을 소지한 민간인이다.

북미-미국



미국에서 최연소 멘사 회원이 탄생했다. 에밀린 로트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에밀린 로트저는 2살 때 멘사 협회로부터 실시된 테스트에서 아이큐 135로 평가받아 최연소 멘사 회원이 됐다. 로트저는 생후 15개월 후 글자를 읽기 시작했고 이름을 쓰고 100까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2살 생일에는 간단한 수학 퍼즐도 풀었다. 멘사는 지능지수가 전 세계 상위 2%안에 들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멘사 회원 중 10세 이하는 전 세계에 약 30명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멕시코



멕시코의 한 도시 구아사베에서 경찰과 갱집단으로 의심되는 무리들 사이에서 총격전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양 측에서 총 12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 사건은 총기를 들고 있던 신원불명의 한 남자가 멕시코 경찰의 순찰자를 공격한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멕시코는 민간인은 물론 공권력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는 갱들로 인해 멕시코 일부지역이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멕시코는 언론인을 포함하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아시아-시리아



시리아 정부군이 시위 중이던 대학생들에게 실탄을 쏘 최소 4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체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일(수)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알레프 내 알레프대학에 모여있던 대학생 1500명에게 최루탄을 쏜 것에서 시작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뿐만 아니라 공격이 끝난 후에도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학교 기숙사가 가 최루가스등을 사용해 대학을 즉시 떠나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수단



현재 남수단과 대립하고 있는 수단이 먼저 남수단과 평화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전지대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수단과 남수단에 '48시간 안에 전투를 중지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단이 평화 해법에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 남수단은 확실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최은지(어문·아프리카어 12)양은 "두 국가의 화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의 이견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대통령이 3일(목) 인도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했다고 현지 국영뉴스통신 부아뉴스가 보도했다. 주마 대통령은 3일(목) 남아공을 방문한 인도 파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남아공과 인도 양국이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파틸 대통령의 방문이 남아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번역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흡산 인 더 월드 (hufsan in the world)

천성민(동유럽·세국어 07)

중절모 벗은 영국을 만나다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기품 넘치는 양복 △세월과 손때가 묻어 멋스럽게 윤기가 흐르는 지팡이 △머리에 차분히 얹어진 중절모. 인천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던 내 머리 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이었다.

11시간의 비행 후, 히드로 공항 3번 터미널 게이트를 빠져 나와 숙소로 향하는 내 눈에 들어온 영국의 모습은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가슴 두근거리는 광경에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다. 앞으로 펼쳐질 1년간의 영국생활이 정말 기대됐다.

영국생활이 익숙해지자 외국인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많아졌다. 한번은 내가 항상 장을 보던 TESCO라는 마트에서 친해진 직원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 직원이 제일 먼저 꺼낸 말은 역시 우리나라 가전제품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가전제품 외에 한국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냐고 묻자 되돌아온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 람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묻곤 했지만 아시아 출신의 친구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정도의 정보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한류의 인기도 체감하기 어려웠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 축제에서 왕의 행사복을 코스프레한 영국인과의 만남.

내가 살던 필리코(Pimlico)는 한국의 정부보조주택과 비슷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부촌들과는 다르게 서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아침시간이면 동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들 △오후엔 유모차를 끌고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들 △시 내에는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며 도시에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

'영국' 하면 떠오르는 '핍'도 빼놓을 수 없다.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며 수십 군데의 핍을 갔는데, 물론 시내에 있는 유명한 핍은 관광객들도 북적거렸지만 마을에 위치한 핍은 그 지역주민들의 공간이었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축구명가' 영국답게 축구에 대한 얘기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네 감정과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순간만은 우리와 다른 생김새를 잊을 정도였다.

영국에 머무는 동안 좋은 기회도 찾아왔다. 바로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결혼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영국인들의 모습에서 엘리자베스를 마치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는 마음과 왕가에 대한 관심 및 존경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1년 가까이 머물며 영국은 웅장한 건물과 역사가 깃든 거리뿐만 아니라 소소하고 서민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화려한 관광지나 쇼퍼거리를 빠져 나와 그들의 일상에 다가간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영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흡스피킹 (Hufs+spe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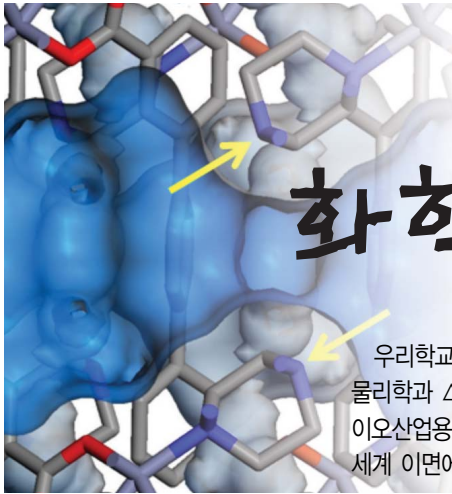


▲ 친구와 함께 캠퍼스 봄나들이

A: 안녕? 오랜만이다
B: 응, 시험은 잘 봤어?
A: 당연하지. 식은 죽 먹기였어.
B: 나는 한 학년 올라가니 어려웠는데 부럽다.
A: 농담이야. 봄 날씨 참 좋다.
B: 응, 꽃도 많이 피서 학교가 예쁘다.

러시아어	
A: Привет, давно не виделись. 브리바엣, 다브노 니 비질리시.	
B: Да, хорошо сдал экзамен? 다, 하라소 스달 이그자미엔?	
A: Конечно, как дважды два четыре. 까나에쉬나, 깡 드바즈드 두바 취뜨리예.	
B: Мне было тяжело переходя на следующий курс, завидую тебе. 므나예 빌로 짜질로 베레오자 나 슬라예두유쉬이 푸르스, 자비두유 짜바.	
A: Шутка, весенняя погода очень хорошая. 슈뜨까, 베스냐야 빠고다 오친 하로샤야.	
B: Да, университет красивый из-за цветков. 다, 우니베르사엣 프라씨비 이즈-자 쵸비예뜨코프.	
단어장	
안녕? Привет 브리바엣	
시험 Экзамен 이그자미엔	
농담 Шутка 슈뜨까	
꽃 Цветок 쵸비예뜨	
봄 Весна 비에스나	

아랍어	
A: السلام عليكم. لم أرك منذ مدة طويلة. 앗살라-무 알라이쿰, 램 아라카 문두 못다된 쵸말-리딘.	
B: وعليكم السلام. كيف كانت امتحاناتك? 와 알라이쿰트 살람. 케야파 카-나트 임타하나-타카?	
A: كانت هي قطعة من الكلك فقط. 카-나트 하야 끼뜨야 마날 카오크 파카뜨.	
B: كانت امتحاناتي صعبة بعد تقدم بصف واحد. أنا أفسسك. 카-나트 임타하나-티 쇠오바 바오다 타깟두미 바왈핀 와-히딘. 아나 아흐수두카.	
A: أنا مزحت. والطقس في الربيع لطيف جدا. 아나 마자오투. 윗따끄스 피 아르라바-이 라다-프 깃단.	
B: صحيح والجامعة جميلة بسبب تفتح الزهور الربيعية. 쇠하-호, 윗자-미아투. 자말-라 비사비비 타깟투윗 주후-르 라비-이야.	
단어장	
안녕? السلام عليكم (앗살라-무 알라이쿰)	
시험 امتحان (임티한)	
농담 مزحة (마즈하)	
꽃 زهور (주후-르)	
봄 ربيع (라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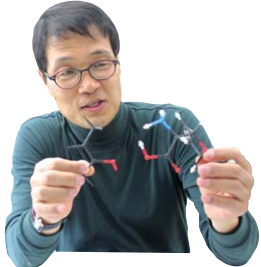


우리학교 바이오산업용 단백질 연구센터의 두 원자!

화학과 하현준·허성 교수를 만나다

우리학교에서 외국어만 가르친다는 오랜 편견은 접어라!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캠퍼스에 세워진 자연과학대학에는 총6개의 학부(△생명공학과 △수학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통계학과 △화학)가 존재한다. 그 중 화학과는 '물질세계의 온갖 현상을 연구한다'는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경기도의 지원으로 세워진 바이오산업용 단백질 연구센터에는 하현준·허성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연구진들이 중소기업들과의 공생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화학이란 무엇일까? 차가운 과학 세계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그들의 열정을 느껴보자.

편집자주



“연구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어와요~!” 하현준 교수는 특유의 경쾌한 인사말로 잔뜩 긴장한 기자를 맞이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자 모형들이었다. 수업시간에 직접 크고 작은 크기의 모형을 분리하고 다시 조립하며 강의의 진행한다고 한다. 그가 진행하는 연구는 크게 4가지다.

1. 화합물의 다양성, 용도 그리고 빌딩블럭

가구를 만들려면 목재를 다듬고 붙여야 한다. 단위 분자는 목재(블럭)와 같은 역할을 한다. 분자를 쪼개고 자르는 화학, 그리고 분자들을 잘 결합시키는 화학반응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2. 반응에서의 선택성

스키를 타고 산을 내려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같이 에너지를 높은 상태로 만들었다가 어느 쪽으로 내려갈지 조절하는 것이 선택성이다. 물질의 특성에 따라 고유의 길을 조정한다.

3. 화합물의 입체구조

오른손 장갑을 왼손에 끼면 맞지 않는다. 3차원적으로 일정한 모양을 가진 모든 물체는 입체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외형은 똑같은데 방향에 따라 화합물질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4. 의료영상 분자개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방사능 약을 섭취 후 의료 영상을 촬영한다. 이는 진단영상장치중 하나로, 보통 환한 부분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암세포가 있는 곳이다. 이 때 화학적 연구가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 교수는 피인용지수 26.58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Chemical Society Reviews를 비롯하여 최상위 등급 SCI 학술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연구라는 자전거를 잘 운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비라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연구비가 필요하다. 또 들쭉날쭉 하는 연구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계의 속성상 잠시 쉴 수도 없다. 모두

치열하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현준 교수는 오늘도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그는 “같이 연구했던 제자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했다. 함께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들은 길게는 10년 이상 동고동락한다. 당연히 유대감이 남다르다. 하 교수는 꼭 1년에 두 차례 제자들과 축구를 하는 등 연구실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그는 “학자로서의 보람도 빠뜨릴 수 없지만, 학생에 대한 보람이 가장 크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강의뿐 아니라 우리학교 바이오산업용 단백질 연구센터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하현준 교수는 “바이오산업이란 △생물 △농업 △축산 △의학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하는데, 바이오산업용 단백질 연구센터는 위 산업에 필요한 단백질을 연구해 상품을 만드는 곳”이라 정의했다.

올해 건립 5년차인 바이오산업용 단백질 연구센터는 현재 여덟 명의 참여교수들이 모여 학문적·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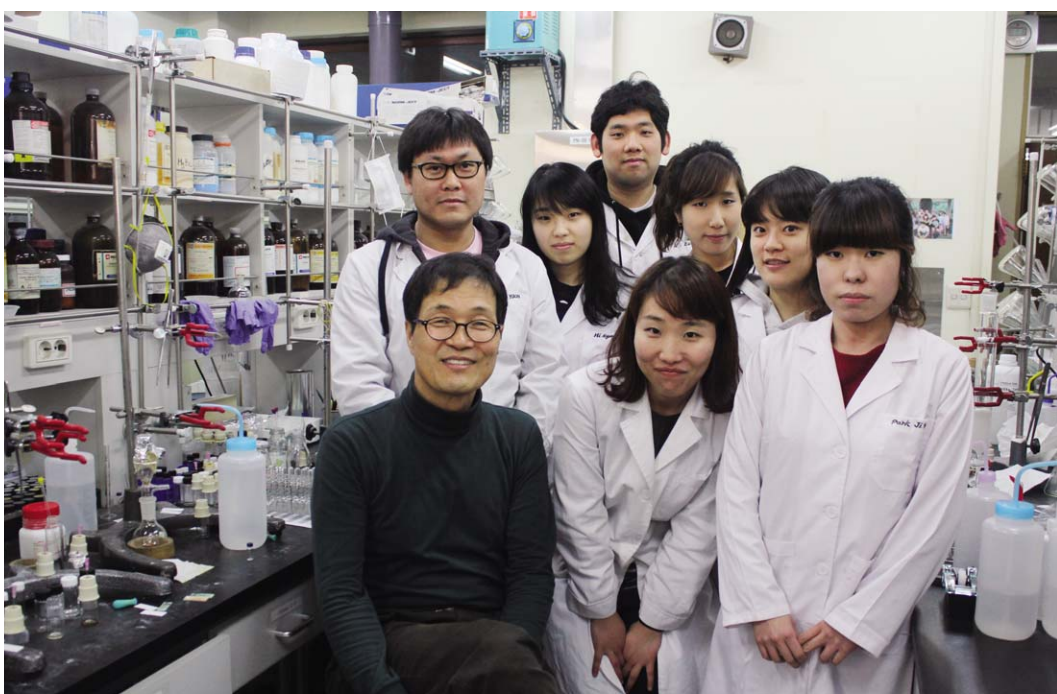
“직접 실험실을 둘러보고 싶다”는 기자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하 교수와 함께 방문한 실험실은 말로 형용 할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가득 차 있었고, 갖가지 실험 기구와 약품이 즐비했다. ‘사진 촬영’이라는 말에 ‘아~ 가운데 지지분한테’라며 수줍어하는 막내 학부생부터는 그들이 짙은 대학원 조교 그리고 하 교수까지, 연구실 곳곳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실 식구들의 땀과 열정이 스며있다.

하현준 교수는 “저는 학교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도 견디면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한 때는 물이 없어 연구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고.

또한, 그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연과학계에 대한 인식도 앞으로 해쳐나가야 할 과제다. 22년째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는 그는 “조금 더 빨리 달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와 학생들의 열정이 있기에 우리학교 화학과와 자연과학대학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서상아 기자

82seosanga@hufs.ac.kr



▲ 하현준 교수와 미래의 화학자를 꿈꾸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실험과 연구가 노는 방식이에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수많은 자료들 틈에서 골똘히 컴퓨터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허성 교수가 보였다. 그는 우리학교 화학과의 젊은 교수 중 한 명이다. 무기화학을 전공한 허 교수의 논문은 영국왕립화학회에서 발간되는 SCI급 국제전문학술지 Chemical Communications에 실리고, 연구결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논문에 인용되고 있다.

무기화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그는 주로 금속 이온과 유기물질로 구성된 ‘혼성형 다공성 물질’과 실리카나 이산화티타늄 등의 ‘산화물 계열 다공성 물질’을 합성한다. 또 이들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기체흡착 능력과 촉매활성 등의 화학적 성질을 연구한다.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기사를 보며 허성 교수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건 아시죠?”라고 물었다. 그는 “쉽게 말해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기공이 많은 다공성 물질에 이산화탄소가 보다 잘 달라붙도록 하는 흡착능력을 향상시키는 실험이라고 보면 된다”고 실험을 들었다.

허 교수는 무기화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다. ‘널리 쓰이는 옷감의 성분인 폴리에스터부터 핸드폰, 자동차 등을 이루는 무기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무기화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도 처음엔 화학을 어려워했다. “대학에서 배우는 화학이 내 생각처럼 즐겁지만은 않았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허성 교수를 이끈 원동력은 ‘오기’였다. 그는 “어려워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험했다”며 “대학원에 진학한 근본적인 이유도 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을 이었다.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무기화학에 더 즐거움을 느꼈고,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평균 12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냈다. 오래있을 때는 15시간 넘게 실험에 몰두했다고 한다. 허 교수는 “저뿐만 아니라 보통 과학자들도 다 똑같다”며 “이런 얘기가 기사에 실린다면 아마 다른 교수들이 웃을지도 모른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요즘처럼 봄벌레가 따듯한 날엔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기자의 질문에 허 교수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험이 가장 재미있다”고 했다. 실험하고 연구하는 일이 그가 노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밤급 전까지만 해도 놀고 있었다며 싱긋 웃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외에도 허 교수는 권혁만 생명공학과 교수 연구진과 함께 바이오산업용 단백질 연구센터 실험에 참여해 새로운 연구논문을 Nanotechnology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단백질을 다공성물질과 결합시켜 단백질 기능이 부족한 세포 안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연구로, 한 달 동안 무려 250회나 다운로드 돼 나노테크놀로지의 편집자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 년 동안 한 가지 연구에 몰두한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이다. 허 교수는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나 과학자들이 가운입고 논문 발표하는 장면들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그 모습 뒤에 지난 여러 해 동안의 노고와 숨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원들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는 “모든 일이 어려움을 수반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하루 빨리 그 진리를 깨닫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워진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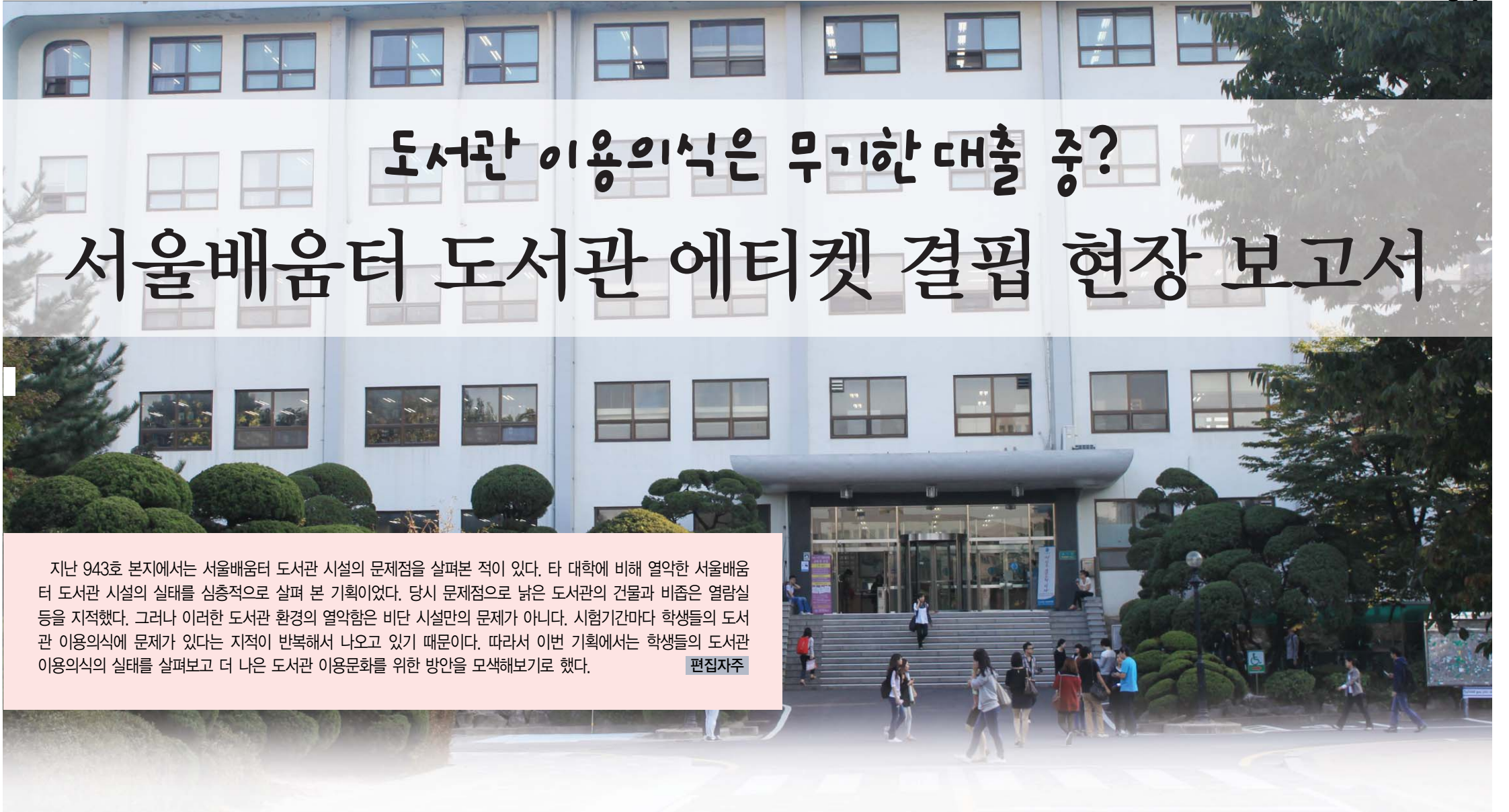
허성 교수는 중요성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공계의 현실을 지적했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이공계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공계를 기피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공계의 발전이 곧 국력과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며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현실”이라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맺었다.

우보연 기자

84omg@hufs.ac.kr



▲ “쉽죠?”, 허성 교수와 어려워서 끄덕이는 기자의 인터뷰.



도서관 이용의식은 무기한 대출 중? 서울배움터 도서관 에티켓 결핍 현장 보고서

지난 943호 본지에서는 서울배움터 도서관 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본 적이 있다. 타 대학에 비해 열악한 서울배움터 도서관 시설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 본 기획이었다. 당시 문제점으로 낮은 도서관의 건물과 비좁은 열람실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환경의 열악함은 비단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험기간마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획에서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의식의 실태를 살펴보고 더 나은 도서관 이용문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서울배움터 중앙도서관 총격의 24시
지난 주 코앞으로 다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 시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자리하고 있었다. 새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에 감탄하며 자리를 찾아 4층 B열람실 구석으로 들어간 순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각종 전공서적부터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차 있는 이면지, 책상 위에 작은 언덕이 된 지우개 가루들... 의자에는 겉옷 뿐 아니라 집 욕실을 떠올리게 하는 수건까지 걸려 있었다. 바닥으로 눈을 돌리니 더 가관이었다. 언제 빨랐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운동화, 바닥이 다 헤진 삼선 슬리퍼까지. 도저히 이 자리에서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새로운 좌석표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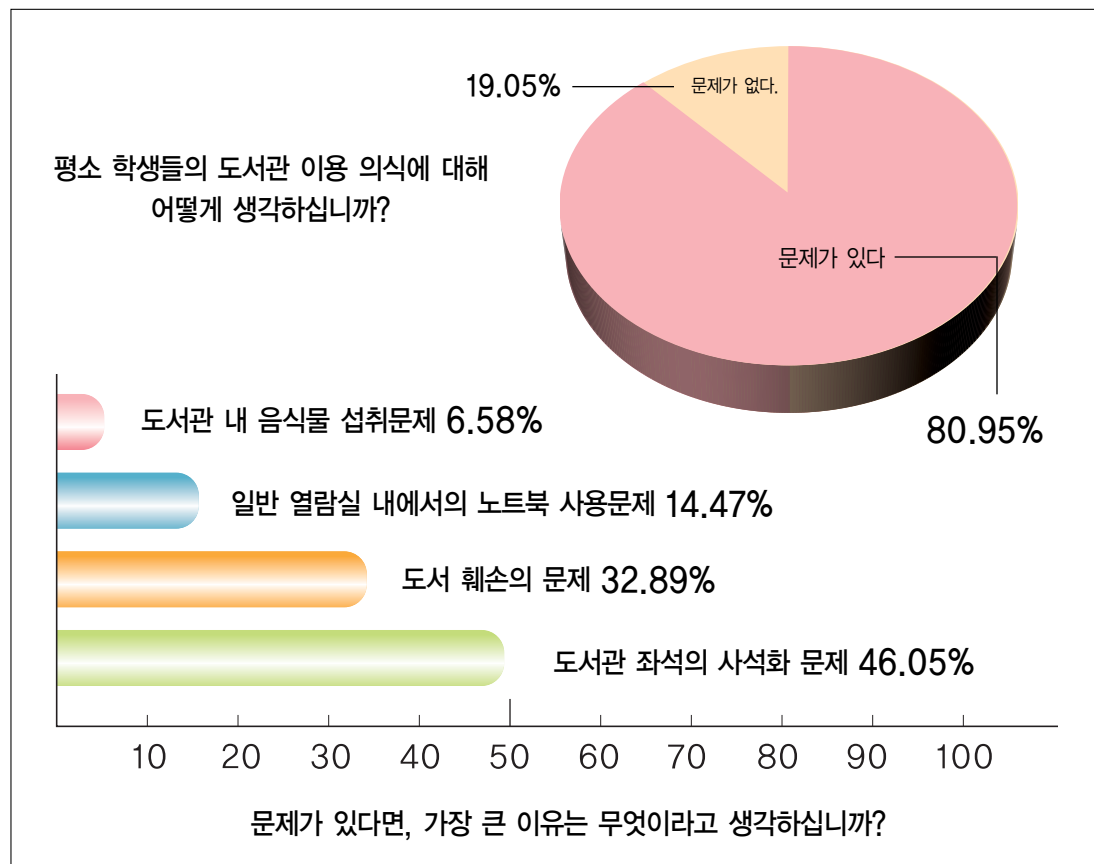
가뜩이나 더운 날씨인데 도서관 계단을 두 번 오르락내리락하니 기운이 모두 빠져 공부할 힘이 나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대출해 온 경제수학책을 펼쳤다. 책을 펼치니 색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고 심지어 문제의 답까지 친절히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실력이 나쁜 목수가 연장 탕을 한다고 책 때문에 과제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꼭 참고 손으로 답이 표시된 부분을 가려가며 과제를 했다. 그렇게 과제를 하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을까?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노트북 자판소리가 신경쓰였다. 내 대각선에 자리를 잡은 학생이 노트북으로 무언가 열심히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를 자극하는 매콤한 냄새가 뒤에서 풍겨오기 시작했다. 냄새의 주인공은 우걱우걱 소리까지 내며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다. 결국 과제는 반도 하지 못한 채 내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도서관을 뒤로 했다.

◆약 80% 학생들, "우리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의식수준 문제 있어"
본지는 지난 달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서울배움터 학생 719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0.95%의 학생들이 현재 학생들의 '도서관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 중 56.7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도서관 좌석의 사석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도서 훼손 문제(32.89%) △일반 열람실 내에서의 노트북 사용문제(14.47%) △도서관 내 음식물 섭취문제(6.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서관은 우리의 모두의 것 아닌가요?"
앞선 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도서관 의식 관련 문제 중 사석화와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서관 사석화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도서관 열람실에 책이나 슬리퍼 등 개인 물품을 쌓아두고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도서관학생위원회(이하 도학위)는 이번 학기 초부터 주기적으로 창틀 벽면 등에 올려져 있는 개인물품을 치우는 '사석화 방지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그 효과

도서관 이용의식 설문조사



설문조사기간 : 2012년 5월 1일(화) ~ 2일(수)까지 서울배움터 719명 학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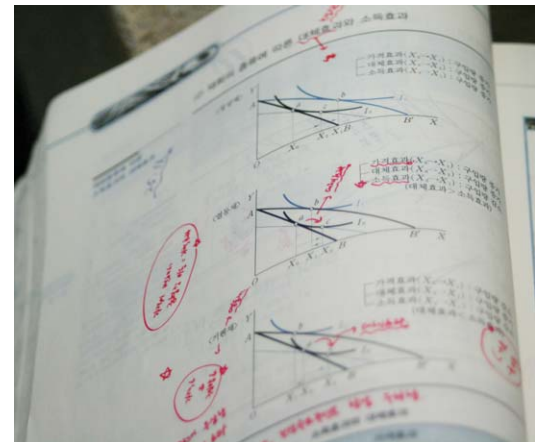


▲ 도서관 난간에 올려져있는 책

는 미비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석화 문제에 대해 김혜원(동양어·이란어 12)양은 "도서관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책, 슬리퍼 등이 창가에 올려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태웅(서양어·프랑스 08)도학위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작업을 해 왔지만 수거한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는 등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거한 물품을 즉각적으로 폐기처분하는 철거 작업을 지난 6일(일)과 7일(월)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도서관 복도는 소통의 장? 조용한 열람실 문이 열릴 때마다 밖에서 쉬고 있

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3일(목) 오후 6시경 일반도서 열람실인 4층 B열람실을 돌아본 결과 4명의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다. 안정원(동양어·이란어 11)양은 "노트북 사용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노트북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판소리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낱서가 돼있는 도서관 소장책

내 책은 내 책, 도서관 책도 내 책?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해 빌려온 책들을 살펴보면 낱서가 돼있거나 중간에 페이지가 찢겨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김소연(중국·지역 11)양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참고하려고 책을 빌렸는데 답이 너무 크게 적혀 있어서 당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는 문제집이나 전공서적 등 특히 도서 훼손이 심한 책에 한해 낱서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붙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도서관 학술정보팀 정보봉사파트의 한홍진 팀장은 "학생들이 책을 반납하고 대출하는 시간이 특정시간에 몰려 있어 일일이 책을 검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비용이나 인력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의식개선,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변화만이 답

시험기간마다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휴스라이프'에는 도서관에 대한 불만의 글이 수도 없이 게시된다.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문제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 중 대부분은 도학위 및 총학생회 측에서 별 점제나 순찰제도 등을 도입해 학생들을 관리하는 타율적 규제방안이었다.

도학위장 오태웅군은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 나름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도서관 의식개선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의 에티켓문제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의식으로부터 야기된 문제인 만큼 외부의 타율적인 규제보다는 학생 스스로 내부의 인식변화가 더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열람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노트북 자판소리, 신경쓰이죠."
우리학교 도서관의 노트북 전용 열람실은 약 16여 석으로 타 대학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공간마저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해 노트북 전용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노트북 전용 열람실이 아닌 일반 열람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



▲골동품가게에 타자기와 전화기가 가득 쌓여 있다.

▲추억거리, 볼거리 가득한 서울풍물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건 팔기에 여념이 없는 어린이 풍물시장의 꼬마상인들.

▲“아빠, 이건 무었에 쓰던 물건이예요?”

추억을 판매합니다~ 서울풍물시장

◆옛것의 새 가치를 발견하는 곳

TV에서 서울풍물시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부모님께서 잘 아시는 듯 반가움에 추억을 꺼내 놓으셨다. “없는 것이 없어서 만물시장으로 불린다”라며 “그곳에 가면 가치 없다고 생각한 옛 물건도 새로운 가치를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추억거리를 찾아보기 위해 기자는 길을 나섰다. 처음 풍물시장에 발을 디디며 우리에겐 생소한 7080세대의 모습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 반가운 물건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 한번쯤 다 키워봤을 만한 전자 애완동물 ‘다마고치’와 TV로 많이 접하던 ‘뭇난이 인형’ 등의 장난감들이 기자의 추억을 상기시켜주었다.

자녀들에게 타자기를 설명하는 주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온 김연숙(40, 강북구)씨는 “엄마시대의 물건을 보여주려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라며 “놀이동산, 볼링장 등 놀러갈 곳은 많지만 생소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걸을 수 있는 곳을 찾아와 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방문소감을 전했다.

시장의 모습은 옛 시대의 물건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지만 풍물시장은 엄연히 물건을 매매하는 명실상부 시장이었다. 다양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서울풍물시장의 그 규모는 만물상을 넘어 종합시장에 버금하는 듯 했다.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한 전자가게로 향했다.

15만원의 저렴한 노트북을 고르자 만물전자 주인

이철호씨는 “이런 가격은 단종 된 물건을 수리해 팔기 때문에 가능하죠. 제품서비스도 오직 이곳에서만 하고 끝까지 품질을 보증합니다”라며 물건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서울풍물시장이 걸어온 길

지금의 서울풍물시장은 70~80년대 골동품의 메카로 불리며 전국각지에서 모여드는 손님들로 발을 딛고 틈도 없었던 황학동 도깨비시장으로 더 유명했다.

서울시에서 2004년 청계천을 복원하며 황학동 도깨비시장과 주변 노점상을 함께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으로 이전시켜 조성했다. 이때 동대문운동장 풍물벼룩시장으로 이름이 변했다. 그러던 중 2006년 동대문운동장 공원과 사업이 발표되면서 풍물벼룩시장은 또다시 이전했다. 공원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청계천과 청계천도로에서 시장이 열렸고 이후 서울시는 풍물벼룩시장을 철거하는 대신 2008년 시유지인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옮겨 새롭게 풍물벼룩시장을 조성했다.

풍물시장을 30년 이상 지켜온 남색동 가방가게 주인 임영희(74, 월계동)씨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청계천 그리고 황학동까지 이어진 만물시장의 역사와 함께 했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사람이라 5남매를 이곳에서 장사하며 키웠는데 장사를 넘어 사람들과 정을 쌓아가는 곳이에요”하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오감 충족의 나들이 코스

서울풍물시장이 단순히 상점만 즐비하게 늘어진 타 시장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풍물이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듯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한 달에 한번 상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장터가 열린다. 시민풍물장터에 참여한 장보연(29, 광진구)씨는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서 신기해요. 또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 이야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재밌어요”라며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시민풍물장터 이외에도 △고사리 손으로 동화책과 옷을 파는 어린이 벼룩시장 △한국말로 친근하게 “구경하고 가세요”라 말하는 외국인 벼룩시장 △청계천 황학동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상인주말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서울풍물시장의 정문 도로부터 공영주차장까지 펼쳐진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추억의 풍물기행이라는 견학프로그램이 있다. 이 견학프로그램에서는 풍물문화 해설사를 통해 전통생활용품들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하회탈 △부채 △한지공예 △탁본 뜨기 등 전통공예품을 무료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이 시장 후면에 위치해 있다.

시장을 걷다보면 필름 사진기, 손으로 돌려서 거는 전화기 등 디지털에서 한 발짝 물러서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물건을 접할 수 있다. 어릴 적 추억도 되새기고 좋은 물건도 건질 수 있는 일석 이조의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데이트

를 하기 위해 온 대학생 연인을 만났다. 서은교(25, 안양시)양은 “흔히 데이트하면 학교 근처에서 영화나 연극을 보기 마련인데 안 가본 곳을 찾아 인터넷 검색해서 오게 됐어요”라며 “어쩐지 또 다시 와보고 싶어지는 곳이에요”라고 말했다.

이번 5월 식상한 대학가 주변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오감만족을 할 수 있는 신선통 서울풍물시장거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

편집자주

문나윤 기자 84beginning@hufs.ac.kr

서울풍물시장 가는 길



그림 읽어주는 기자

기자 고정 칼럼

서상아 기자

이은수 기자의 들찬길* ③ 보그 모먼트(VOGUE MOMENT)

*들찬길 : 들판으로 박차고 나아가는 길

그림보다 잔혹한 현실

한 눈에 보기에도 턱없이 좁아 보이는 나무 뗏목 위에서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다. 뗏목 가장자리에는 시체들이 힘없이 널브러져있는 한편 죽어가는 동료들 끌어안고 절망에 빠진 남자도 눈에 띈다. 다가오는 검은 파도에 맞서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이들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표류하게 됐을까. 미친듯이 옷가지를 흔들며 대는 사람들은 과연 살아 남았을까.



테오도르 제리코, 《메두사 호의 뗏목》

작가의 상상이었으면 덜 잔인했을 이 그림은 1816년 여름, 난파된 프랑스 전함 ‘메두사 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이다. 메두사 호가 난파되자 무능력한 선장과 장교들은 150여명의 선원과 승객들을 버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가버렸다. 물도 식량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 남은 사람들은 뗏목 위에서 동료의 시신을 먹는 등 야만적 행위를 하면서 죽어갔다 지나가던 작은 범선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13일간의 극한 표류 후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15명이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놓고 낭만주의의 선구자였다고 평한다. 하지만 오늘날은 충격적인 이 사건 그리고 그림보다 더 잔인한 우리네 현실을 말하고자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하루라도 신문에 실리지 않는 날이 없다. 경찰의 등장 대우 속에 조선족 사내

에게 처참히 살해된 수원의 한 여성에서부터 ‘사령을 따르다’는 황당한 인터넷 종교 신도의 길을 맞고 신촌의 한 공원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청년까지. 이 살인극의 끝은 어디인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조심, 또 조심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안전을 신경 쓴다 해도 한계가 있다. 메두사 호의 비극은 무능력한 선장과 장교들의 버림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물론이고 국가 지도부까지, 어딘가 뗏목들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살펴야 할 시점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그때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다음 표적은 바로 당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패션잡지 ‘보그(VOGUE)’. ‘패션 유행을 선도한다’는 이 세계적인 잡지는 명성에 걸맞게 각종 명품브랜드의 화보로 도배돼 있다. 보그가 전하는 ‘2012 S/S 컬렉션엔 이런 색이 유행!’이나 ‘할리우드 배우 A는 브랜드 가방을 맨다!’ 같은 정보들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보그 모먼트(VOGUE MOMENT)전 포스터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의 ‘보그 모먼트(VOGUE MOMENT)’ 전(展)에서 보그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보그다운 화려한 전시회를 상상한다면 오산이다. 가판대의 한 자리를 차지하던 보그는 이제 전시장에 걸려있다. 여전히 눈에 띄게 예쁘고 마른 표지모델이 시선을 잡는다. 얼핏 보면 모델의 얼굴에 보석이 박혀 있는 듯 반짝거린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보석이 아닌 바느질 자국이다. 희끗희끗해진 셀 수 없이 많은 바늘구멍들이 닳아 빛을 반사한 것뿐이었다. 난데없이 바늘 공격을 당한 모델은 얼마나 황당할까. 다음 작품엔 해골이 등장한다. 그것도 닳을 들고 모델을 뒤에서 안고 있다. 닳의 날이 향하는 곳은 그녀의 목이다. 갈

이 도슨트의 설명을 들던 아이가 무섭다며 엄마를 찾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그는 선망의 세계다. 그런데 보그가 제시하는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한다. 종종 보그가 물질문명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는 이유기도 하다. 끝없는 유행, 그리고 이를 쫓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소비의 유희에서 헤어 나오기란 힘들다. 그렇지만

작가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보그뿐만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드라마에서 인기 연예인이 맨가방이 며칠 후엔 절판되는 세상에 산다. 타인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면에 투자하는 것만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보그 하나가 아니다. 겉모습만을 치장하는데 극성인, 그래서 보그와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격대상이 된다. 작가들은 닳을 든 해골의 다음 표적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꼬집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는 이번달 27일(일)까지 ‘보그 모먼트’ 전(展)을 진행한다. 당신은 이 전시를 보고 불쾌할 것인가, 통쾌할 것인가.

의사소통, 학문으로 이해하기

인문대학 언어인문학과 박진 외래교수



“우리 아이는 돌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말을 못해요”

“전 말을 하고 싶는데 말이 막혀 나오질 않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님이 싫어증이라 말씀을 잘 못하세요”

‘의사소통장애’ (Communication Disorders)라고 하는 말, 이제는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니다. 현대 의료기술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10%가 의사소통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학령전기, 학령기 아동들 그리고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

세에 힘입어 최근 다양한 형태의 언어 장애나 말장애와 같은 소위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소통장애의 평가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언어재활사(speech language pathologists)가 21세기 유망직종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본고를 통해 먼저 언어병리학이란 어떤 분야인지 주로 다루는 의사소통 장애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언어병리학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여러 원인 등으로 겪게 되는 여러 의사소통장애를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신경학 △언어학 △심리학 △청각학 △생리학 △말과학 등 관련 여러 학문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일종의 학제 간 연합학문(interdisciplinary study)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에게 있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인간이 특정 원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심각

한 장애를 겪게 된다면 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학령전기 또는 학령기 아동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발달장애 △말을 하고 싶는데 말이 막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말더듬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심각한 언어 장애를 겪게 되는 실어증까지. 한마디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이 언어병리학이며 △학교 △언어치료실 △병원 등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의사소통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힘쓰는 직종이 바로 언어재활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병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아동의 언어발달상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를 주로 다루는 아동언어발달장애 영역을 들 수 있다. 또한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사고로 성인의 언어사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실어증(aphasia) 또는 마비말장애(dysarthria)를 다루는 신경언어장애 영역이 있다. 주로 막힘(blockage)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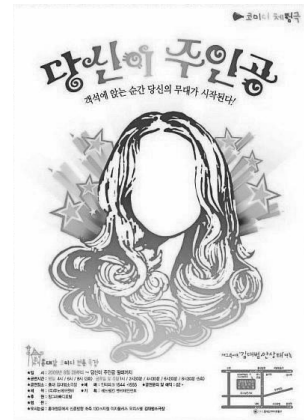
로 인해 말산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말더듬’(stuttering)은 소위 ‘유창성장애’(fluency disorders) 영역에 포함되어 다루어진다. 그 외에도 목소리 과용 또는 남용 또는 다른 기질적 요인으로 인해 성대(vocal folds)나 후두조직 이상으로 발성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를 평가하고 치료하게 되는 발성장애(voice disorders) 영역, 말소리 생성과 관련해 주로 조음이나 음운문제를 다루는 조음음운장애(articulation and phonology disorders)까지, 실로 인간의 의사소통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애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분야가 바로 언어병리학인 것이다.

지난해 2011년 우리나라에선 언어재활사제도가 국회인준을 통해 정식으로 국가자격증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언어병리학 뿐 아니라 새로운 유망직종으로서 언어재활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기대해본다. 언어병리학, 한마디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학문분야이다.

극과극 기자 고정칼럼

문나윤 기자

당신은 오늘 웃음의 주인공



▲ 연극 <당신이 주인공>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10회, 한번 웃을 때 9초 정도 웃는다. 그 결과 하루에 총 90초를 웃는 셈이다. 일생을 80년이라고 하면 총 30일 정도 밖에 안 된다. 실제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 500명 중 9명은 하루에 단 한 번도 웃지 않는다. 즐거움,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 저절로 지어지는 미소와 웃음. 외형상으로 행복을 드러내 주는 지표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일까. 웃음을 잃은 당신에게 이 연극을 추천한다.

연극 <당신이 주인공>은 입장을 기다리는 순간부터 관객이 주인공이 된다. 관객들은 입장대기 시간에 출연진이라고 적힌 출석부에 이름을 쓴 후, 빈 종이에 ‘재밌는 말이나 단어를 적어 달라’는 미션을 부여 받는다. 자신을 감독이라 지칭하는 배우는 관객들에게 ‘반말해도 되지?’라며 다짜고짜 배역을 정해준다. 국어 대사가 낯선 외국인 관객에게는 고풍이 역할을, 웃는 것이 자신 있다는 관객에게는 관객 역할을 주며 배우와 관객의 위치를 주객전도 시킨다. 연극은 △막장드라마 △마트에서 생긴 일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군대 훈련 상황 등의 다양한 토포드 주제를 제시한다. 이때마다 관객들은 배우로 참여해 극을 꾸며간다. 공연시간 90분이 지나면 모든 관객이 참여한 극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극장을 나서서 마지막 순간, 관객들의 공연하는 사진이 동영상으로 편집돼 이름과 함께 스크린에 상영된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게 뭐가 웃겨?’라고 반응한 적이 있다. 공연예술의 한 부분인 희극과 소극은 가장 객관적인 극이다. 모든 이가 웃을 수 있도록 공통의 관심사 즉, 공감대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극에서 관객은 처음 배우가 된 다른 관객의 떨림도 느끼고, 본인이 주인공이 됐을 때의 긴장감도 함께 느낀다. 이로써 내가 남에게 주는 웃음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진짜 웃음이 나온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요동별판을 보고 ‘한바탕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말했다면 기자는 이 극을 ‘한바탕 웃어볼만한 자리’라 일컫고 싶다.



책 it out 기자가 선정한 책을 통해 세상을 비춰보는 코너입니다

안지혜 기자

오월에 생각하는 내 부모의 웃겨

이 책의 주인공 ‘나’는 오랜만에 시골 고향집에 내려간다. 어머니는 정부의 ‘농어촌 지방 개량 사업’ 지원을 받는 김에 집 기둥부터 새로 세워 초가집 방 한 칸이라도 더 늘리고 자 하는 소망을 슬며시 내비친다. 하지만 나는 이를 외면한다. 자식인 ‘나’가 고등학교,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지러내는 동안 홀어머니는 날아 기르는 사람의 뒹을 전혀 못했으며, 따라서 ‘우리 모자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을 빛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웃겨 얘기를 꺼내면서부터 상황은 불리해졌다. 웃겨는 부인할 수 없는 모정의 상징이었다. 학생시절 타지에서 공부하던 ‘나’는 가세가 기울어 집을 팔아넘겼다는 소

식을 듣고 고향을 찾았다. 그 때 놀랍게도 이미 남의 소유가 된 옛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을 만났다. 하룻밤이라도 아들에게 대궐집에 살던 옛 기억을 아들이 상기시켜 주고 싶었던 노인은 이불 한 채와 웃겨 하나를 그대로 두고 아들을 기다려 왔던 것이다.

이야기는 어머니가 ‘나’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눈 쌓인 길까지 확장된다. 집도 절도 없어진 마당에 행어나 이웃의 눈에 띄어 낱부끄러워 질까 첫새벽부터 아들을 보내야 했던 그 날. 버스타는 곳까지 서로 부축하며 지나 온 그 눈길을 노인 홀로 눈물 뿌리며 돌아와야 했던 이야기는 ‘나’가 아내와 어머니의 얘기를 엿듣지 않았다면 영영 모

를 수도 있던 내막이었다.

책의 주인공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진 모종의 책임관계를 부정하려고 노력한다. 서로에게 해 준 것이 없기에 받을 것도 없다는 신념아래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의를 외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방 한 칸에 놓인 웃겨는 노인에 대한 주인공의 결심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오히려 주인공이 가지는 마음의 빛을 여실히 증명하고 나간다.

현대사회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세련된 관념이 사람들 간 관계를 지배한다. 이는 어떤 경우 부모자식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물질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본인이 부모에게 받은 그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 이정준 작

이 시대의 세련된 아들, 딸들. 심지어는 적어도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하는 자녀들. 하고 싶은 일들과 이루고 싶은 목표들의 우선순위에 밀려 우리네 부모님들은 내 마음의 번지수에서 정찰할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마다 생각해 본다. 가슴 속 내 부모의 웃겨를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

경·제·쑥·쑥

김용훈 뉴스토마토 기자

네모난 지구 14 <고정기고>

김병호(국제지역대학원)

이건희 회장의 연봉이 궁금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의 대가로 얼마를 받을까? 2012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은 올해 연봉으로 지난해보다 4.1% 오른 1억8941만9000원을 받는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연봉조차 인터넷을 통해 쉽게 공개가 되는 ‘좋은 세상’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집단이 있다. 바로 국내 상장기업 임원들의 연봉이다. 때문에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수는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선진국 가운데 상장기업 임원의 개별 연봉이 공개되지 않는 곳은 드물다. 현재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은 개별 보수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연간 1억엔(약 1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은 개별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때문에 만약 누군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빌 게이츠가 일 년 동안 회사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찾아보면 된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태국 △필리핀 △포르투갈 △브라질 등은 총액 보수 공시를 채택한다. 예컨대 △최고경영자(CEO) △이사 △상무 3명이 각각 △5억원 △1억원 △6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현재는 ‘등기임원 1인당 평균 2억 2000만원’이라고 밝히면 된다. 지난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상장기업 등기 임원들의 개별적인 보수를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글로벌 스탠더드

에도 맞는 것일 뿐 아니라 투자한 이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상장기업 임원의 개별 보수 공시는 기업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과도한 임금을 가져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는 임원보수 총액만 승인하고, 재벌총수가 지배하는 이사회가 개인별 보수 지급액을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08년 3월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계의 반대 여론이 한 몫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업들은 임원의 보수는 경영진과 주주의 문제로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수가 공개되지 않는 비상장법인 임원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임원보수의 하향평준화로 경영자를 꿈꾸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논리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재계의 임원 연봉 개별 공시가 3년이나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해결책을 내놓기도 한다. 과연 5년 후엔 재계의 ‘사생활 침해’ 주장이 사라질지 의문이다. 사생활 침해는 차치 하고라도 임원 개별 보수 공사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에 생산성이 떨어졌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1991년 민주화 시위 등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은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다. 우리가 겪었던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현재 몇몇 아랍 국가에서 재현되고 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몇몇 국가들은 민주화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진행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이 민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있다. 시리아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시리아 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위를 시종일관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에서는 6개 평화안을 채택하고,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을 특사로 파견해 시리아 정권과 반정부 시위대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려 했다.

하지만 4월 12일로 예정된 휴전 시한이 다가오자 양측은 △하마 △홀스 △이들리브 등지에서 더욱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휴전 시한을 넘기고도 시리아 사태는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평화안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유엔 안보

리는 30명의 비무장 군사 감시단 선발대를 시리아로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 시리아 결의안 2042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지난 달 21일에는 시리아 감시단 규모를 3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결의안 2043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달 3일에 시리아군이 알레포 대학을 습격하고 시위 학생들에게 발포해 4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하는 등 계속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휴전합의가 발효된 지 3주가 넘었지만 계속되는 사상자의 발생에 양측은 서로 휴전을 위한 협상과 이행을 내리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혹자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한다. 투쟁, 시위라는 수단은 분명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장이라는 평화적 수단도 분명 존재한다. 현 단계에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평화적 수단이 시급히 발휘돼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계속될 아랍의 민주화 과정에서 더 이상 피가민 주화의 필요조건이 되지 않길 기대해본다.

로그아웃 기자 고정 칼럼

우보연 기자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있나요?



최근 한 포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에 갈 때 가장 많이 가져가는 물건으로 스마트폰이 압도적인 1위로 선정됐다. 몸에 지니고 다니기에 안심맞춤인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이전 화장실까지 점령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지하철, 버스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주변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관심이 없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스마트폰 액정에 고정돼있다. 심지어 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요즘 수업시간 학생들의 스마트폰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수들도 속을 썩고 있다. 한 대학의 조사 결과, 교수들이 꼽은 수업 방해의 요인 1위는 스마트폰 사용이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와 메신저 사용이 급증했고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자, 학생들은 쉽게 스마트폰 중독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런 상황은 강의실까지 이어져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교수마저 집중력을 잃게 해 학습 분위기를 흐린다.

물론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SNS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자신 뿐 아니라 주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 된다.

언젠가 교수님께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당신은 이곳에 와있습니까? 혹시 몸만 와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SNS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있나요? 혹시 스마트폰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진 않나요?

일시 정지

선택과 선택사이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라는 말처럼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위에서 본 학교의 모습은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와 닮았다. 의자 위에 앉아서 휴식을 즐기는 사진 속 학생들처럼 치열한 선택의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순간을 만끽해보자. B와 D 사이에는 Choice 뿐 아니라 Comma(,)도 있기에. 사진 조연 기자 · 글 신혜지 기자

지난호를 말한다 | 김현정 | 여론 · 그늘어 10

역사적 순간에 함께한 외대학보

이번 외대학보는 평소와는 다른 학보의 지면 구성과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 방문 기사 뿐 만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실려서 읽을거리가 어느 때보다 풍부했고 유익했다.

2면과 3면의 기사들은 각각 오바마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 직접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 학보에 실린 기사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분위기나 상황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3면의 연설장 스케치 기사는 기사가 참 가자르써 현장감을 살려 다른 언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 방문의 뒷이야기를 다룬 기사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장으로 우리학교를 선택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풀 수 있었다. 또 인터뷰를 글 형식으로 풀어 쓴 점도 기존에 학보에서는 보지 못했던 방식이어서 신선했다. 하지만 제목의 크기가 너무 커서 독자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 아쉬웠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은 4명의 학

생들의 특별 좌담회 기사도 좋은 시도였다. 하지만 내용이 진부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 좀 더 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독자들에게도 좀 더 재밌는 기사가 됐을 것 같다.

반면 바로 옆의 사진 기획기사는 매우 재미있고 눈에 잘 띄었다. 중요한 사진들은 아니었지만 독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진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사진 설명들이 독특했고 기존의 신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학 신문만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오바마 참행시를 공모해 학생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삼행시에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볼 수 있었다.

이번 학보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마지막 전면광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마치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중에 나온 말인 것처럼 사진과 문구가 잘 맞아 떨어졌다. 이번호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큰 행사를 빠짐없이 골고루 잘 담아낸 것 같다. 역사의 순간에 언제나 함께하는 외대학보가 제 값을 보여준 호라고 생각한다.

국어국문학과 일본어일본문학

홈페이지(HUFS+professor)의 소리



일본학부 김중덕 교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사법제도나 건축용어 등에 일제 식민지시대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일상의 어휘에도 △사회 △개인 △그 △그녀 △자유 △연애 △자연 등과 같이 이미 우리 문화에 녹아 도저히 어떻게 발라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용어 가운데 대학의 학과 명칭인 '국어국문학과'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한국외대의 학부에는 일찍이 사법대학에 '한국어교육과'를 개설했지만 대학

원에는 '국어국문학과'가 설치돼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도 일제시대의 학과명인 '국어국문학과'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실체만 '일어일본학'에서 '한국어한국문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국내의 대학과 연구자들은 '국어국문학'을 권위 있는 용어로 생각하는지 신주 모시듯 하고 있다.

'국어(國語)'는 중국어의 사서명이기도 했지만,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일본의 언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군국주의 일본은 자국민의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기 위해 심상소학교(1886)와 국민학교(1941)의 교재 명을 국어로 정하고, 대학의 학문분야로 국문학과를 설립했다. '국민학교'라는 명칭도 일본에서는 1947년에 '소학교'로 바꾸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까지 그대로 사용

했다. 전후에 일본은 '국어교육'을 자국민을 대상으로 언어의 4가지 기능을 숙달시키는 교육을 의미했고 '일본어교육'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나 모어로서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어의 운용능력을 숙달시키는 교육을 지칭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 '국어국문학'이라는 용어를 '일본어일본문학'으로 바꾸고 글로벌화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1995년 도쿄대학(東京大學)이 '국어국문학' 전공과정을 '일본어일본문학'으로 바꾸자 많은 대학들이 동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당시 학과명을 '일본어일본문학'으로 바꾼 대학이 72%를 넘었고, 연구기관이나 학회의 명칭도 차례로 바뀌고 있다. '일본어학회'의 회장 마에다 도미요시(前田

富藏)는 학회 홈페이지의 인사말에서, 명칭이 바뀌기까지 많은 논란과 의견수렴을 했고 회원의 투표로 결정했다는 것을 밝힌 후 위화감을 주는 '국어학회'를 '일본어학회'로 바꾼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결정하여 군국주의 망령이 부활할거라는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으나, 한편에서는 '국어국문학'이라는 내셔널리즘이 담긴 용어를 버리고 '일본어일본문학'으로 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외인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은 항상 가장 싫어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배워야 할 나라 1위로 나타나지만, 우리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도 이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기 자신답게 살자

동문의 소리



아리랑 TV 글로벌전략팀 김현미 (노어과 00)

내 어린 시절에는 풋풋한 대학생들이 주인공인 캠퍼스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 그만큼 대학생활은 자유와 낭만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드라마는 찾기 어려울뿐더러 낭만이란 단어가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히려 요즘 TV나 소설,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88만원세대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나 역시 요즘의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잘 알기에 한창 젊을 때 그 자유를 만끽하라는 말을 선불리 하지 못

했다. 그런데 20대를 지나 30대에 들어서고 보니 그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아름다움을 몰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시절인지 알게 됐다.

나는 대학재학 당시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 좋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 만약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것을 경험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학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나 역시 대학시절 다녀

온 어학연수 기간에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 직접보고 느끼는 것만 큼 큰 공부는 없다. 하지만 반찬 등 부담이 된다면 방학 동안만이라도 여행 혹은 해외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에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더 큰 세상과 만나며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들로 고민했었는지 느끼고 더 넓은 가슴과 더 커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란다.

사실 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방황을 하고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는 오로지 대학입학이 목표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을 입학한 이후부터 질풍노도가 시작되는 건 당연한게 아닐까. 그 시절엔 나 자신에 대해 깊게 성찰해보

고 많은 방황과 고민도 해 봐야 한다. 그런데 마치 고등학교 때 입시가 목표인 것처럼 모두들 이제 취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듯이 대기업으로 입사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시기. 그게 20대라고 생각한다.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며 방황도 했다 그 시련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20대다.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나는 왜 그것을 원하는지 찾고 또 찾는 시간이다. 그 래야 비로소 30대가 되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진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두려워 말고 힘차게 나아가보자!

지난호를 말한다 | 오세진 | 영어 · 영문 06

좋은 소재 돋보이나 문제제기에도 힘써야

이번호는 지난 3월 26일 본교 서울캠퍼스에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강연 특집으로 구성됐다. 여러 기사가 각각의 내용에서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지만, 학보 기자들의 적극적인 아이템 발굴이 눈에 띄었다. 보통 오바마 대통령 방문사실과 그의 연설내용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를 준비한 실무진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또한 당시 강연장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는 일도 소홀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강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실제 외교현장을 누빈 통번역대학원 교수들을 소개하여 우리학교의 우수성을 알린 점도 좋은 아이템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일부 있었다. 연설내용 전문을 실은 점은 좋았으나, 연설 안에 담긴 국제적 핵 관련 이슈 및 주요 용어 등을 다루는 지면을 따로 만들어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스케치 및 인

터뷰 중심 기사뿐만 아니라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향후 국가 간 협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뉴스를 함께 실었다면 신문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인 신문 구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실 게재도 눈에 띄었다. <외대학보는 외대의 역사다>라는 제목의 사실은 내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같은 호에 실린 기사 대부분이 오바마 강연 특집기획 하에 작성된 만큼, 위 사실도 기획에 걸맞은 내용을 담았다면 신문 구성의 통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구성상 부조화를 근거로 위 사실을 문제 삼았지만, 학보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후기를 끝맺고자 한다. 지금처럼 학생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해주길 바란다. 분명 학보 독자 수는 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학보 발행을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학보 소속 기자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흡산의 소리 | 흡산(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Studies'an의 준말로 외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철에서 얻게 되는 것

새내기가 되며 나의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중에서도 수업을 듣기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는 일은 가장 새로운 일이다. 혹자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새로운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주안점은 몇 시에 지하철을 타느냐이다. 출근 시간과 겹칠 때, 엄청난 인파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은 정말 새로운 것이다.

이때 이 인파 속에서 대학생, 회사원, 등산객, 노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하얀 교복블라우스를 입은 학생들만 비치면 고등학생 때와는 조금 다른 감상을 받게 된다. 교복은 단정함과 답답한 입시경쟁의 상반된 이미지를 주었다면, 사회인의 와이셔츠에서는 삶의 고단함과 피로가 느껴진다. 이는 아마 나 스스로의 등갓길 위낙 험난해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상일 수도 있다. 출근난이 전정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기에 타인의 얼굴도 쉽게 지켜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그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상황은 묘하게 열정적이다. 목적지에 향하는 수단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향한 목적지가 있어서 희망적이다. 거기서 열정이 나온다. 돈을 벌기위해 가는 직장인에게서도, 공부하러가는 학생에게서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탐골공원으로 향하는 노인들에게서도 그 열정이 느껴진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는 것이 많은 사고를 하게 한다는 사실은 인간관계가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듯하다. 이게 바로 고단한 지하철 등갓길과 바퀴 얻게 되는 교훈 같아서, 오늘도 힘내서 새벽 지하철에 몸을 맡긴다.

신지혜(사회·자전 12)

4학년은 휴학 중

덜컥 4학년씩이나 되었지만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있었다. 이대로는 졸업 할 수 없다며 한 학기를 남기고 하게 된 휴학. "휴학하고 뭘 할 거야?"라는 질문의 답은? "그냥 이것저것 해보게!"였다. 특별한 것 없이 말 그대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라는 것.

돌이켜보니 휴학기간 동안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영향이 컸다. 지원했다는 자체로 관심이 생겨, 덤벼라 보자는 생각으로 국제회의관련 단기사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재미도 있었고 경력이 되면서 다음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됐다.

그렇게 약 두 달 동안 국제회의 운영요원, 롯데백화점의 대학생대외활동 '샤롯데드리머즈'를 하면서 나름 균형잡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결국 정말 운 좋게도 부산총회에 리에종(Liaison)으로써 참가국 모잠비크의 외교부 차관 및 대표단의 을 의전통역을 하게 되었고, 가까이에서 실무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4년의 워크숍을 밤샘투혼으로 준비한 결과 최종우승으로 해외탐방기회를 얻으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을 하든 정답은 없고, 오답도 없다. 하지만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라는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은 정답인 것 같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본 경험이라도 그게 다 나중엔 다른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태 내가 우물안의 개구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보기 좋게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물 밖을 느끼려는 찰나 또다시 우물 밖 우물로 느껴졌지만 이것이 나를 알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이 된 것 같다. 지금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일주일 전, 여전히 나의 제1의 목표는 경험이다. 4학년은 여전히 휴학 중이다.

이경희(통번역·이태리 08)

사설

58세의 학자, 58세의 대학

아일랜드의 시인 Yeats는 58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Yeats 외에도 58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16명이 더 있다. 문학상을 수상한 Quasimodo, 평화상에 Brandt, Lamas, Wiesel, 경제학상에 Lucas와 Stiglitz, 의학상에 Axel과 Hunt, 물리학상에 de Gennes, Rainwater, Wilson, 화학상에 Axelrod, Emst, Hevesy, Mitchell, Sabatier가 있다. 58세는 학자에게 중요한 나이이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53%가 58세 이상이었다.

지난 4월 20일, 우리 대학은 개교 5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가 열린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은 3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설했던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 학교는 지난 58년 동안 세계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일군 지도자를 양성해왔다. 만약 노벨 교육상이 있다면, 올해 58세를 맞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받아야 할 것 같다.

58세의 우리 학교가 나아가갈 방향은 세계 초일류대학이다. 우리 학교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8세에 노벨상을 수상한 17명의 지성처럼, 58세 이후 인류 발전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은 430여명의 학자들처럼, 우리 학교도 올해 58세를 기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것은 2년 뒤 개교 60주년을 맞이 위해 우리 학교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양보를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18대 국회가 2일(화)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했다. 폭력 국회, 최루탄 국회 등의 오명을 가진 18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받고 있다.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온 몸을 던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18대 국회위원 중 대다수가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정치의 결과였다.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보여줬던 정치 수준은 '뽕싸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를 진척시켜나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결과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난 지금, 국민들의 인식 속에 국회는 싸움터로 전락해 버렸다. 날치기 법안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최후탄이 날아다니는 등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국회의 모습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와 양보의 태도를 갖기보다 자신의 당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모습들이었다.

이런 모습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일까.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가 구성원들의 불참으로 연일 미뤄지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대평의 임기조정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소집에 불응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요구일 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입장이 다르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바람직한 답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 답을 위해선 서로의 양보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때다.

외대학보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독자 기고란
 - 폐서의 소리(교원) · 산의 소리(학생) · 동문의 소리(동문)
 - 지난호를 말하다
- ◆기사 제보 및 기고 주실 곳
 - 전자우편 hufspress@hanmail.net
 - (서울) 09)2173-2504 (용인) 031)330-4112
 - 학생기자실 (서울) 신학생회관 401호 (용인) 학생회관 212호
 - 편집장 오유진(어문·그물어 10) 82yujin@hufs.ac.kr
 - 보내주시 기사제보는 신문사의 편집 계획에 따라 실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3매 내외 · 투고방법 : 전자우편 hufspress@hanmail.net

비둘기 칠판

외대학보가 묻습니다

감사의 달 5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서울배움터
스페인어과 조구호 교수님께
이번 학기 교수님의 강의를 두 개나 수강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유쾌하고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정♥
신지혜(서양어·스페인어 10)

■글로벌캠퍼스
점점 작아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고단하셨을까'하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김보연(통번역·스페인어 09)

김주은, 너를 통해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어. 고맙다.
박재우(통번역·영어 12)

허성진 선생님, 미적분도 모른 채 고3이 된 절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엔 선생님을 위한 10단 도시락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윤지현(사범·영교 12)

외대학보

www.oedae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오유진

부장 서상아 신지혜 조인우

차장 강유나 문나윤 안지혜 우보연 이은수 홍규원

조교 김병호 이현주

제작 (주)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9)2173-2504 / 02)2173-2505(F)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십자말풀이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①				②		
①								
			③					
						④		
⑤		③						
		⑥						
				⑦				

- I 가로열쇠**
- ① 학교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 우리학교는 4월 20일이다. (1면 참조)
 - ②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축제의 명칭. (2면 참조)
 - ⑤ '서울 풍물시장'을 이르는 다른 말. 황학동 ○○○○. (8면 참조)
 - ⑥ 서울대 미술관에서 현재 열고 있는 기획전의 이름. ○○○○. (8면 참조)
 - ⑦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하여 정한 날. 5월 1일. (12면 참조)
- I 세로열쇠**
- ① 전체 학생들이 모여 학교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 (3면 참조)
 - ② 교수 5인, 학생대표 2인, 직원대표 2인, 동문대표 1인, 기타 학교 발전 기여자 1인의 총 11명으로 구성된, 학교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기구. ○학○○원회. (2면 참조)
 - ③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당-신라-일본 간의 무역을 주도했던 신라의 장소.
 - ④ 미국의 여배우. 아름다운 금발과 붉은 입술 위의 화, 휘날리는 흰 스커트를 부여잡는 이미지로 기억되는 세계적인 섹시 심벌.
 - ⑤ 걸음 수를 측정하는 기계. 걸음을 땀 때마다 그 횟수를 세어 자동적으로 계기에 나타내 준다.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401호 담당자 : 안지혜 기자 (010-9244-0732)
■글로벌 캠퍼스 학생회관 212호 담당자 : 우보연 기자 (010-4877-0115)

■정답 십자말 풀이를 이름과 연락처와 함께 학보사로 가져오시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단, 하나라도 틀릴 경우 상품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특별 인터뷰>

학교의 '우렁각시' 들을 만나다

5월 8일 아버지 날, 5월 15일 스승의 날과 더불어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달 5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할 분들은 부모님과 스승님 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학생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학교 곳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을 찾아 갔다. 편집자주

<서울 배움터 인문과학관 학생식당 최덕규 주방장>

그대,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었는지? 혹시 자타칭 최고의 맛과 질을 보장한다는 우리학교 인문관 학생식당은 아니었는지? 식당 주방에는 언제나 배고픈 우리 청춘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려 오늘도 파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는 분들이 있다. 학생들의 점심식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오후 두시 경, 식당 주방의 총 지휘를 맡는 최덕규 주방장을 만나기 위해 물 넘고 불 넘어 주방을 건넜다. 그는 주방 뒤편의 사무실로 기자를 안내했다.

매끼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은 잘 짜여진 한 편의 오케스트라

96년 9월 12일, 최 주방장은 우리학교 학생식당 주방에 첫 발을 들인 때를 정확히 기억했다. 만으로 치면 15년 8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다는 최 주방장은 식자재 관리부터 조리과 배식까지 주방의 모든 걸 맡고 있는, 말하자면 주방의 '마에스트로'다. "주방에는 영양사 1명과 조리사 2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일하고 있어요. 모두는 오전 일곱 시 쯤 출근해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상 물리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점심 장사를 준비하구요. 배식 시간은 정해져 있어도 학생들 밥 때가 일률적인 게 아니라서 오는 손님 맞다 보면 잠깐 엉덩이 붙일 틈이 없어요. 그래도 조리하시는 분들이 다 10년 이상 같이 근무해온 베테랑들

이라 이젠 서로 눈빛만 보고도 척척 통한 겁니다. △물 △불 △칼을 다루는 주방이다 보니 비빠서 정신없을 땐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맡은 소리를 내니까 완성된 작품이 무사히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거죠"

폭폭 찌는 여름날에 주방에서 불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있을까. 주방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여름에는 조리원들 거의가 온몸에 땀띠를 달고 살죠. 땀 흘리면서도 계속 조리해야 하니까 피부가 헐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잠깐 말고는 앉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외대 학생들이 대한민국 엘리트들인데, 그 친구들 밥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실에 항상 뿌듯합니다" 일이 힘들어도 잘 먹었다고 감사하는 학생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니, 최 주방장은 처음부터 이곳에 뿌리를 박을 사람인 듯 보였다.

방학 때 마다 요리학원을 다니며 더 새롭고 맛있는 메뉴 연구에 힘쓰는 최 주방장. 그는 "주방 조리원들 모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맛있게 밥 먹여주는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네요"라며 부치지 못한 마음을 전했다.



▲ 최덕규 주방장이 눈을 반짝이며 오늘 들어온 식재료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바쁜 아침 일을 마무리하고 잠시 쉼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왼쪽부터 서원두, 김종규, 김양현 시설 관리직원

<서울 배움터 학생회관 서원두, 김종규, 김양현 시설 관리직원>

우리학교의 아침은 교내 곳곳을 청소하는 관리실 선생님들에 의해 분주히 시작된다. 학생회관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만 100리터짜리 중량제 쓰레기봉투로 꽉 채워 10무더기. 병과 플라스틱 등 분리수거 가능한 품목들까지 합치면 한 트럭이 훌쩍 넘는다. 오전 10시쯤 방문한 직원 휴게실에서 △서원두 △김종규 △김양현 세 명의 안내실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당신이 간밤에 버린 쓰레기를.

"학교의 청결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우리학교는 각 건물마다 시설 관리직원들이 따로 배정돼 있다. 이 분들이하시는 일은 △각층 쓰레기 분리수거 △로비와 계단 청소 △사무실 이사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외국인 교원 아파트 방 청소까지 광범위 하다. 서원두 조장은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곳은 학생 회관과 학관단 일대입니다. 총 네 명의 남직원과 여섯 명의 여직원이 함께 작업하고 있죠. 이곳은 학교 내에서 쓰레기양이 가장 많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주 근거지인 기숙사와 동아리방, 과방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며 먼저 입을 뗐다.

아침 6시에 출근해 저녁 5시에 퇴근 할 때까지 이들의 하루 일과표는

빡빡했다. 새벽에 출근 도장을 찍는 것과 동시에 밤새 학생들이 벌여놓은 쓰레기 판을 청소하고 오전 열시쯤 한숨 돌릴 시간이 주어진다. 오후 1시부터는 △화장실과 계단 청소 △건물 곳곳의 포스터 수거 △잔디정리 등의 일과가 이어진다. 쓰레기 치우는 게 좀 힘든 일인가. 무거운 쓰레기 더미를 나르면서 이곳저곳 아픈 곳도 많겠다 싶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육체노동이니까 아무래도 몸이 혹사 될 때가 많지. 분리수거 하다가 유리조각 등에 베일 때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기자의 표정에 동료 직원이 말을 보탰다.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깨끗해진 학교에 출근하고 등교하는 것을 볼 때 마다 뿌듯하지. 근데 가끔 보면 학생들이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줘도 참 좋을 텐데 말야" 분리수거가 안 되고 온갖 잡쓰레기들이 막무가내로 버무려져 있는 쓰레기통, 청춘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 밤마다 부서지는 화장실 문과 동아리 방 기물 등의 익숙한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쳤다.

"괜찮아, 우리는 맑은 바 소임을 다할 뿐이지. 그래도 청소 후 박카스 한 잔이면 웬만큼은 위로가 된다니까. 하하" 김양현 선생님은 박카스 건배를 제의하며 '씨익' 미소를 지어보였다.

<서울 배움터 중앙도서관 장우영 관리직원>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출입할 때 항상 거치는 과정들이 있다. 먼저 리더기에 학생증을 인식하고 그 다음 관리직원 선생님과 눈을 맞춘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한 인사.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지는 않나 하루 종일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하루에도 수차례 도서관 안팎을 순회하며 도서관 장서와 각종 기물의 안녕을 확인하는 관리직원 선생님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는 이들의 작전은 가히 '도서관 수비특공대'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장우영 도서관 관리 조장을 만나 오늘의 작전명을 들어봤다.

마르고 달도록 보고 또 보고, 살피고 또 살피는 도서관의 연인

장 관리직원은 하루 일과의 시작부터 이야기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우리 관리직원들은 오전 여섯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여섯시에 퇴근하는, 24시간 근무체로 일하고 있어. 총 네 명의 관리직원이 두 명씩 조를 짜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지. 하루 일하고 하루는 쉬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도서관 순찰과 청소상태 점검, 파손된 기물은 없나 확인하는 일을 해" 한 번 일을 시작하면 24시간 근무하는 말에 입이 떡 벌어졌다. 낮에는 2시간 마다 도서관 안팎 순찰을 돌고 밤에는 시간마다 한 번씩 열람실을 순회한다면 대략 따져 봐도 하루 동안 도서관을 오르내리는 횟수가 열 번이 넘는다.

순찰 돌면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나한테는 막동이기도

한참 막동이같은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뭐 좀 해보겠다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볼 때 어떤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뭘 돈이 있다고 가끔 음로수 같은 걸 사올 땐 마음이 짠하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도서관을 출입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려고 더 노력하게 된다고도 했다. "다만 학생들이 학생증 좀 꼭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 학생증 빌려서 출입하는지 아닌지 내가 다 알아 보거든. 하하"

주로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 항상 젊은 마인드와 외양을 유지하는 것도 비즈니스의 일부라 한다. "우리 관리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머리염색은 물론 면도까지 항상 깔끔히 신경 쓴다니까. 내가 잘해야 학생들도 잘 한다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장 관리직원의 잘 빗겨진 머리가 항상 흑단같이 검게 빛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일은 힘들어도 매일 착하고 예쁜 우리 학생들 보면서 일하니까 젊어지는 기분이야. 우리가 미래의 주역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해." 이는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취재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였다. 학생에게 학교가 제 2의 생활공간이라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은 제 2의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다. 오늘은 캠퍼스를 오가면서 만나는 이 분들께 반갑게 인사라도 먼저 건네 보는 것이 어떨까.



▲ 도서관에 출입하는 학생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장우영 관리직원

안지혜 기자 84ladypress@hufs.ac.kr

